

KIA, LG에 5-6 역전패...팻딘 5⅓이닝 5실점 무너져

최형우 솔로홈런·버나디나 역전 투런포 등 빛 바래
9회말 마무리 김세현 상대 가르시아 끝내기 좌전안타

LG 트윈스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KIA 타이거즈를 제압했다. LG는 1일 잠실에서 열린 2018 KBO리그 KIA전서 6-5로 짜릿하게 승리했다. 5-5로 맞선 9회말 가르시아가 끝내기 결승타를 터뜨렸다. 가르시아는 4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으로 승리에 앞장섰다. LG 선발 김대현은 홈런 2방을 맞으며 5⅓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박용택과 가르시아가 1타점씩 올렸고 양석환이 재역전 3점 홈런을 쏘아올렸다. 반면 KIA의 선발 팻딘은 5⅓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1회말 LG가 2점을 뽑아 기선을 제압했다. 선두타자 안익훈이 유격수 내야안타로 출루했고 김현수가

좌중간 2루타를 때렸다. 무사 2, 3루서 박용택이 2루 땅볼로 타점을 올렸다. 계속된 1사 3루에서는 가르시아가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LG 선발 김대현의 호투에 막혀 끌려가던 KIA는 홈런 2방으로 역전했다. 0-2로 뒤진 5회초 선두타자 최형우가 솔로 홈런을 때렸다. 2스트라이크 1볼 불리한 카운트에서 바깥쪽 패스트볼을 밀어 좌측 담장을 넘겼다. 시즌 2호 1-2로 뒤진 6회초에는 버나디나가 역전 투런포를 터뜨렸다. 버나디나는 2사 2루서 역시 패스트볼을 타격해 비거리 130m짜리 대형 아치를 그렸다. 역시 시즌 2호. LG도 끝마로 홈런으로 응수해 재역전했고 KIA는 다시 승부를 원

점으로 돌렸다. LG가 6회말 양석환의 3점포로 5-3을 만들자 KIA도 7회초 2점을 만회했다. 양석환은 6회말 무사 1, 2루서 KIA 선발 팻딘의 하이 패스트볼을 잡아 당겼다. 시즌 2호, KIA는 7회초 1사 만루서 이명기의 2루 땅볼, 버나디나의 중전안타로 각각 1점씩 쌓았다. LG는 9회초 2사 만루 위기를 낚던 뒤 9회말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KIA 마무리 김세현을 상대로 선두타자 이찬동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안익훈이 보내기먼트에 성공했고 김현수는 자동 고의사구로 1루를 채웠다. 박용택이 포수 인필드 플라이로 몰려나며 2사 1, 2루, 가르시아가 좌전안타로 경기를 끝냈다.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 6회초 2사 주자 2루 상황에서 KIA 버나디나가 역전 투런 홈런을 때린 후 최형우와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광양시 우보 팀 선수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김중필 광양시게이트볼협회 회장과 함께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성료

광양시 마동근린체육공원 제1축구장서 48개 팀 300여명 참가
우승 광양시 우보 팀...준우승 순천시·3위 보성경로·여수광림

광양시게이트볼협회(회장 김중필)가 지난 달 29일 광양시 마동근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177회 전남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는 광양시체육회 후원으로 48개 팀 약 300여 명이 출전 지역과 구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각축을 벌였다. 광양시게이트볼협회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아 첫 지역 경기인 만큼 스포츠맨 정신에 입각하여 그동안

안 갖고 닦은 기량을 광양에서 충분히 발휘하여 명예와 건강을 함께 얻어 가시기를 바란다."며 "지난달 승부에 치우치지 보다는 동호인들과의 교류와 친목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시게이트볼협회 천세영(사무국장)은 경기 개시 전 경기규칙과 방법을 제시 "모든 경기방법과 규정은 대한게이트볼협회 규정에 준한다"며 "예선 리그전을 거쳐 본선 진출 16개 팀부터는 토너먼트전으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최종 결승전에서는 광양시 우보 팀과 순천시 팀이 불꽃 튀는 접전 끝에 13대9로 우보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한 우보 팀 천세영(주장) 공계진, 김용훈, 박상순, 한 귀순, 김용연, 박상용 선수가 출전. 우승기와 상장을 수상하며 기쁘게 축하하는 영광의 기쁨을 느꼈다. 한편 우승을 한 우보 팀은 지난해 이어 2연승으로 2012년 11월 첫 출전하여 우승 8회, 준우승 6회, 3위 등 5년 여 동안 16회의 입상을 거두어 게이트볼경기 실력은 동부권에서 최상위 그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팀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산강 벚꽃길 따라' 제5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대회

영산강변에 활짝핀 벚꽃길을 따라 펼쳐진 우정과 화합의 '제5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대회'가 1일 나주에서 열렸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주최하고 나주마라톤클럽 주관 광주시·전남도·나주시·사랑방·무등일보 후원으로 이날 열린 대회에는 2000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했다. 또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손금주·이개호·장병만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박권식 한국전력 상생협력본부장,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 김욱기 전남도의원, 이만준 전남도의원, 노문철 한전광주전남지역본부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전국 2000여명 마라토너 참여...풀코스 김정모씨 1위



영산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주관 '제5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대회'가 2000여명의 전국 마라토너가 참여한 가운데 1일 오전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지고 있다.

마라토너들은 42.195km와 풀코스, 10km, 5km 구간으로 나눠 총성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 영산강변에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의 응원을 받으며 빛가람 나주대교를 지나 승촌보를 거쳐 결승점인 나주스포츠파크까지 완주하며 기량을 뽐냈다. 휠체어에 이버지를 태운 채 집주한 아들을 비롯해 어린이의 손을 잡고 참가한 가족, 마라톤 동호회원, 연인, 직장 동료, 외국인들이 완주에 성공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에서 풀코스는 김정모가 2시간 53분 10초9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구병주(2시간 53분 11초2), 김성익(3시간 18분 1초9)의 기록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김항희(3시간 19분 51초

55), 박은숙(3시간 27분 36초85), 이혜수(3시간 55분 27초90)가 각각 1, 2, 3위에 입상했다. 하프코스 남자부는 1시간 19분 53초52를 기록한 유세준이 1위에 올랐고 강동식(1시간 20분 12초15)·문복식(1시간 20분 33초87)씨가 각각 2위·3위를 차지했다. 여자는 김은숙이 1시간 42분 87초의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임희재(1시간 53분 56초57)·차명순(1시간 56분 55초96)이 2~3위로 뒤를 이었다. 10km 구간은 정현이 34분 55초14의 기록으로 남자부 1위를 차지했으며 송기산(35분 24초25), 정집진

(35분 44초45)이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이은혜가 41분 44초2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김애경(42분 57초43), 박은정(43분 1초12)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됐으며 추첨을 통해 뉴시스 광주전남본부가 제공한 대형 텔레비전이 선물로 주어졌다. 또 동산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무료 스포츠레이프와 물리치료 활동을 펼쳐 관심을 받았다. 나주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 경찰관들도 마라톤 주요 경로의 차량 통행 관리에 힘썼다.

'팀 김' 여자 컬링, 세계랭킹 8위에서 6위로 상승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여자 컬링이 세계컬링연맹(WCF) 세계랭킹을 끌어올렸다. WCF가 1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783점을 기록, 전체 6위에 올랐다. 종전 8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순위

다. 스킵 김은정과 김영미, 김신영, 김경애, 김초희로 이뤄진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해 랭킹 포인트 400점을 추가했다. WCF는 올림픽 금메달을 딴 국가에 랭킹 포인트 480점을, 은메달에 400점, 동메달에 360점을 준다. 대표팀은 지난달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스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에 올라 랭킹 포

인트 50점을 더했다. 세계선수권 금메달 국가는 240점, 은메달 200점, 동메달 180점을 받는다. 4위부터 12위까지는 50점을 얻는다. 평창올림픽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스웨덴이 랭킹 포인트 480점을 추가, 총 1084점으로 여자 컬링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종전 5위에서 4계단이나 상승했다. 랭킹 포인트 1072점을 얻은 캐나다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 평창올림픽에서 예선 탈락하며 체면을 구겼던 캐나다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시스

밀워키, 최지만에 마이너리그행 통보

시범경기 4할 맹타 불구 개막 이틀만에

밀워키 브루어스의 최지만(27)이 메이저리그 개막 후 이틀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밀워키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최완 불펜투수 제닝스와 1년 계약을 했고, 최지만은 트리플A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최지만은 개막 로스터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던 현지 평가 속에서도 시범경기에서 4할이 넘는 맹타를 휘둘러 개막전 로스터에 진입했다. 최지만은 전날 개막전에서 2루타에 결승 득점을 올렸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됐다. 밀워키는 개막 엔트리 25명 중 투수는 11명만 포함시켰다. 투수가 부족한 밀워키는 최지만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고 투수력을 보강했다. 최지만의 계약서에는 스프링캠프와 6월 15일 행사할 수 있는 옵트아웃(계약기간 중 연봉을 포기하고 FA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있다. 최지만은 개막 엔트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는 밀워키에서 뛸 수밖에 없다.

뉴시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개막전 연장 12회 결승 득점을 올린 뒤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는 밀워키 브루어스 최지만(25번)